

# '행정의 달인' 서정수씨 35년 공직생활 화폭에 담아



퇴직을 앞둔 서정수 여주시 자원시설과장이 35년 공직생활 틈틈이 그려온 작품들로 전시회를 연다.

### 여주시 자원시설과장 근무...진도 소치미술대전 '대상' 수상 15일까지 시청서 '자연의 속삭임, 수목에 품다' 전시회 열어

퇴직을 앞둔 여주시청 공무원이 35년 공직생활 틈틈이 그려온 작품들로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현재 여주시청 자원시설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정수씨(61). 서씨는 여주시청에서 30년 가까이 홍보업무 담당 '홍보통'으로, 지난 2015년에는 '지방행정의 달인(행자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한국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재능으로 지난 2010년 늦깎이 나이에 입문했으며, 입문과 동시에 다양한 미술전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진도 소치미술대전 대상을 수상, 화단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서정수 작가는 "35년간의 공직생활의 끝과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회한을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료와 독창적인 표현기법을 통해 잊혀가는 우리 한국화의 감성과 섬세함을 작품에 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자연의 속삭임, 수목에 품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여주시청 문화홀에서 열린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 PEOPLE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 광주문화재단, 배동환 사무처장 취임 풍부한 현장 경험 갖춰...임기 2년

광주문화재단 배동환 제6대 사무처장(사진)이 지난 9일 공식 취임했다. 배동환 사무처장은 음악예술과 교육, 그리고 지역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문화재단의 행정과 사업 운영을 총괄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배동환 신임 사무처장은 목포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전남대 일반대학원 호남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난 1984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목포시립교향악단에서 연주자로 활동하며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했고, 이후 초당대, 명신대, 성화대 등에서 겸임 및 전임 강사로 활동하며 음악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배 신임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으로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힘쓰고, 외부적으로는 시민, 예술인들과 교류하는데 집중하겠다. 또한 임기 기간동안 광주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발굴해 문화예술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 동아병원, 초록우산에 후원금 전달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 광주지역분부는 지역 의료기관인 동아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지역 아동을 위한 특별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의료기관 및 관할전문병원인 동아병원은 지난 2008년부터 18년 동안 초록우산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후원자이다.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30년을 더욱 의미 있게 기념하고자 후원에 나섰다. 이경호 동아병원 대표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한 30년을 특별후원금을 통해 기념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지역주민의 사랑과 신뢰로 쌓아온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오래 후원자인 동아병원의 뜻깊은 후원이 지역 아동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귀한 선물이 될 것이다"고 화답했다. 한편, 동아병원은 1995년 개원 이래 30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고객 중심의 진료와 지역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 70여년 역사 한눈에...송의학원 역사관 개관

### 이사장·총동문화·학생 500명 참석 총 5기로 교육철학·발전과정 담아

학교법인 송의학원은 최근 송의학원 설립 이념과 역사적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송의역사관' 개관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52년 송의학사(보육시설)를 시작으로 송의학원이 설립된 이래 66년간 이어져 온 송의학원의 유구한 교육 여정을 담아낸 이번 송의역사관은 건학 이념과 기독교적 신앙 위에 세워진 학교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개관식은 재단 이사장, 총동문화, 교직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화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송의과학기술과 융합관 2층에 위치한 송의역사

관은 1952년 송의학사를 시작으로 70여년 간 이어져 온 학교 정체성, 교육 여정을 담았다. 송의역사관은 2023년부터 기획·설계·구상 과정을 거쳐 완성됐으며, 올해는 송의학원 설립자 고김신근 목사의 서거 30주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총 5기로 구성된 송의학원의 이사장 재임 시기별 복도 전시는 각 시대별로 교육 철학과 발전 과정을 조망했다. 1기(1952~1965 김신근 목사), 2기(1966~1987 김신근 이사장), 3기(1988~2007 박종택 이사장), 4기(2008~2011 김화자 이사장), 5기(2012~2025 박선주 이사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복도 전시뿐만 아니라 165.2㎡(50평)에 이르는 전시 공간에는 각 시대의 교육적 도전과 응답을 보여주며, 송의가 지켜온 '섬김의 교육' 정신을 전달한다.



학교법인 송의학원은 최근 송의학원 설립 이념과 역사적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송의역사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개관식 재단 이사장, 교직원,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송의역사관은 총동문화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조성됐으며, 이를 통해 '기억과 비전'이 만나는 역사와 교육의 장으로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송의학원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 송의학원 관계자는 "송의역사관은 단순한 과거의 회고를 넘어,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과 교육의 이정표"라며 "송의가 걸어온 길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 나주 전통 차문화·천연염색 매력 알렸다

### 나주문화재단 '국제차문화대전' 참가

나주문화재단이 '국제차문화대전'에 참가해 나주의 전통 차문화와 천연염색 전시관 관람객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10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2회 국제차문화대전'에 참가해 나주 아생차와 전통 차문화를 홍보했다. 국제차문화대전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차문화 박람회로 전통 차를 사랑하는 전문가와 소비자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재단은 행사장 중앙에 나주 홍보관을 설치하고 나주의 차문화 역사와 아생차의 우수성을 집중 소개했다. 특히 나주의 대표적인 전통 차 생산지인 불회사 '비로역차', 운흥사 '초의차' 시음회를 운영하고 초의선사의 정신을 잇는 '초의행다법'을 현대적으로 재현해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윤병태 나주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불회사 비로역차, 운흥사 황차 등을 소개하고 천연염색제품과 나주 문화관광상품을 선보여 처음 참가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큰 호응을 받았다"며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 나주차를 전통 아생차 문화의 메카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

## 90세 어르신 투병 남편에 '석별' 열창 감동무대

### 북구노인복지관, 용봉권역 '시니어 노래자랑' 개최

광주 북구 어르신들의 노래 경연 무대가 감동 속에 마무리 됐다. 광주북구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영옥)은 최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5회 북구 시니어 청춘스타 노래자랑'의 첫 무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찾아가는 노래자랑'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기획됐으며 북구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첫 무대는 용봉권역(용봉동, 삼각동, 매곡동, 오치1·2동) 어르신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으며 무대에는 최고령인 90세의 어르신이 참가해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 93세 남편을 위한 노래로 애창곡 '석별'을 사랑과 존경을 담아 열창해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아흔 살의 아내가 무대 위에서 한 소절 한 소절을 정성껏 불렀는데, 오랜 세월 쌓아온 부부의 정과 애뜻함을 고스란히 전해준 관객들은 잠시 숙연한 분위기에 잠기기도 했다.



김영옥 북구노인종합복지관장은 "노래자랑이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며 "찾아가는 방식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 시니어 청춘스타 노래자랑'은 오는 하반기까지 북구 각 권역을 순회하며 어르신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

##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할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안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 운세 (음력 5월 16일)

48년생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격  
60년생 가장 경제가 다소 회복 될 것  
72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라  
84년생 오락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기 쉽다  
96년생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  
51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63년생 가족에게 관심을 돌려 보라  
75년생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운  
87년생 여자와 말다툼을 주의하라  
99년생 지금 힘드지만 조금만 참으라  
54년생 아랫사람 말에 상처를 입는 운  
66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 하리라  
78년생 문서의 변동으로 여수선한 날  
90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히라  
57년생 무시할만한 상황도 아니다  
69년생 생기발랄한 판도가 조성된다  
81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뒤따라 이 없다  
93년생 반복되는 형상이로다

49년생 자녀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61년생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일에 전념하라  
73년생 양보하면 오히려 득이 될 것  
85년생 연애운이 좋은 시기  
97년생 소신을 갖자  
52년생 지인과 의견 충돌 예상된다  
64년생 부질없이 험한 허비하게 된다  
76년생 거액의 변동으로 여수선한 날  
88년생 재수는 보통이더라도 귀인을 만난다  
55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멀리해도 좋다  
67년생 좋은 말도 헛수고에 그치게 될 것  
79년생 감당할 만 하리라  
91년생 운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것  
58년생 애경사에 미리미리 대비하라  
70년생 신병 조심 초기검진이 필요하다  
82년생 이슬에 옷 젖는줄 모른다  
94년생 여인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50년생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라  
62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가 조성  
74년생 집안일에 충실하다보면 잘 풀린다  
86년생 직장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음  
98년생 선배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53년생 부동산에 투자하라  
65년생 승선수 한다면 만사가 순조롭다  
77년생 경쟁상대는 귀하보다 한 수위  
89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라  
56년생 값어치 있게 활용하라  
68년생 주변 일들은 신경쓰지 마라  
80년생 좋은 기운이 맴돌고 있다  
92년생 성실함 하나로 이룰 수 있다  
59년생 부부 화해하면 이익이 있을 것  
71년생 문서가 오간다면 좋은 결과  
83년생 심오한 뜻을 깨달는다  
95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